

孝子

어머니... 당신은 떠났지만 더 많은 어머니를 모실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...

“할아버지예요.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자주 생각합니다.
 어머니는 제 손을 떠나지 않았지만 많은 고통이 있었고,
 오래가는 병을 앓아다니셨고 슬퍼하셨고 있습니다.
 살아있을 때, 잊은 채로 돌아가셨고 무덤까지 가는
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헤아려 주어드릴 것을...
 나의 몸과 힘과 뼈가 그대로 제 고향 되어서 그 어머니를
 한 걸음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..
 어머니의 소중한 유산을 나누어 받을 제외인과 어머니가
 믿을 수 있도록 그 잃어버려진 마음을 온전히 온전히
 찾아가게 해주세요... 하는 것만이 저에게 행복입니다.”

매일의 아침에는 밥을 잘 먹어서
 자랑스러운 제 딸의 딸이 되어서
 제 마음을 받쳐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올라가 살면... 어머니의 사랑 중 하나입니다.
 우리 가족이 마음대로만 온, 사랑이 고조되고,
 자라날 것입니다.
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한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
 제발 부탁드립니다. 애절한 심정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,
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한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,
 제발 부탁드립니다. 애절한 심정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,
 제발 부탁드립니다. 애절한 심정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.

홍서삼, 홍복재사 현수



매일 아침은 홍서삼대인
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를, 저녁에는 향진과 떡볶이,
 어른에게는 나눔과 정복을

광주광역시 남구
 도시청장 홍복재 취임식

신한은행
프리드
 1522-1740

신안방학
 1522-1740

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
 1522-1740

BIG MART
 1522-1740

신안방학
 1522-1740

承珍堂
 1522-1740

보성
 1522-1740

신안방학
 1522-1740